‘갑질 폭행’에 아파트 경비원 수난시대

50대 입주민이 20대 경비원 담뱃불로 지져…폭행 위험수위

여수선 형제가 폭행·나주서도 피해…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관리비로 월급을 주며 먹여살리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경비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종처럼 부리는 입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담뱃불로 경비원 얼굴을 지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으로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비원을 한 식구로 여기며 투병비를 모금하고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등 아낌없이 보살피는 입주민들 사례<광주일보 8월19일자 7면>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아파트 문화로 여겨질 정도다.

광주서부경찰은 28일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특수상해)로 자영업자 이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A(24)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세 차례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원 A씨는 오른쪽 뺨 3곳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흉터를 없애려면 추후 수술을 받아야할 처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입주민 이씨는 무자비한 폭행으로도 모자라 “네가 뭔데, 하찮은 경비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야. 입주민대표에게 말해 잘라버리겠다. 이 어린××××야”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무엇보다 이런 봉변을 불러온 배경이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경비원 A씨에겐 큰 상처로 남게 됐다.

큰소리로 통화 중인 입주민 이씨에게 심야 순찰 중인 A씨가 매뉴얼에 따라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금만 조용히 통화해달라”고 요구한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여수경찰은 최근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입주민 강모씨(38)와 강씨의 동생(35)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새벽 1시께 여수시 문수동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의자를 부수고 경비원 B(62)씨의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일로 경비원 B씨는 1주일간 병상 신세를 져야했다. 30대 형제가 추석 연휴에 60대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유는 6개월 전 파손된 경비실 유리창 변상의 주체와 관련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나주 한 아파트에서 진입로 혼잡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덜려고 상가 앞 도로에 라바콘을 놓아둔 60대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봉변을 당했다. 자신의 상가 앞 도로에 라바콘을 설치해둔 것을 본 입주민 B(59)씨가 경비원을 불러 “감히 경비원 주제에 남의 장사를 방해하느냐”며 손찌검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릇된 갑질에 시달리는 사례가 없도록 위법사항 발견시 엄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하청업체 직원 등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버지이자 남편, 형, 동생이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착취·폭력 ‘침묵의 카르텔’ 상존하는 한 제2의 여수 여종업원 사건 언제든 재발”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특별법’ 12년 토론회

여수에서 지난해 발생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사건은 착취와 폭력이 지배하는 성매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매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느슨하고 업주와 공무원, 지역사회 유지 등 성매매 현장을 둘러싼 침묵의 카르텔이 상존하는 한 언제든 제2의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사건을 통해서 본 성산업 착취 구조와 여성인권 실태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여수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34)씨는 지난해 11월 업소에서 호흡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뇌사 상태에 빠져 20여일 만에 숨졌다. 사고 직후 동료 종업원 9명이 “사고 전 업주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단순 질식사로 묻힐뻔했다.

언니네 측은 피해자 가족과 동료를 상담한 결과,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가 제공하는 선불금이라는 올가미에 빠져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1000만원 이상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일을 시킨 뒤 지각비, 결근비 등 각종 벌금을 떼어가는 구조인데다 업주 측이 폭력과 협박으로 여성들을 길들여 도저히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언니네는 사건이 일어난 유흥주점이 여수시청에서 2분 거리에 있다는 점, 조사 결과 성매수남에는 경찰과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성매매 업주와 지역사회간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여성들로서는 공무원과 경찰이 업소를 드나들다보니 자연스레 신고 의지가 꺾여 도움을 호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니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수 여종업원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늦은 밤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이틀 뒤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고, 이마저도 업소 측이 CCTV 기록장치 등을 어디론가 옮긴 뒤 경찰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업주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이나 각종 지출이 범죄 수익인데도 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은점, 성매매 알선 장소가 된 해당 유흥주점과 인근 모텔에 대한 법적조치(몰수 등)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수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언니네 김희영 소장은 “성매수 공무원들이 끊이질 않고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폭력과 착취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는 성매매 영업은 제2의 여수 여종업원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항만공사 계약서 보여주며 1억8000만원 ‘꿀꺽’

순천경찰, 회사 대표 구속

순천경찰은 28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며 공사 관리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회사 대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께 피해자 Y(50)씨에게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명의로 된 ‘항만공사 관련 협의계약서’를 보여주며 공사에서 발주하는 일부 펜스공사와 공사 관리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억788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잘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외국 등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니 곧 유치될 것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심시킨 뒤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 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같은 회사 회장 B(54)씨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C(58)씨 등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직원 C씨는 경찰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업무협약(MOU)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수사 경찰 숨진 채 발견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0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44) 경위가 목을 매 숨졌다.

A 경위는 전날 늦은 오후까지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가족에게 “괴로워 죽고싶다”는 말을 남긴 뒤 목숨을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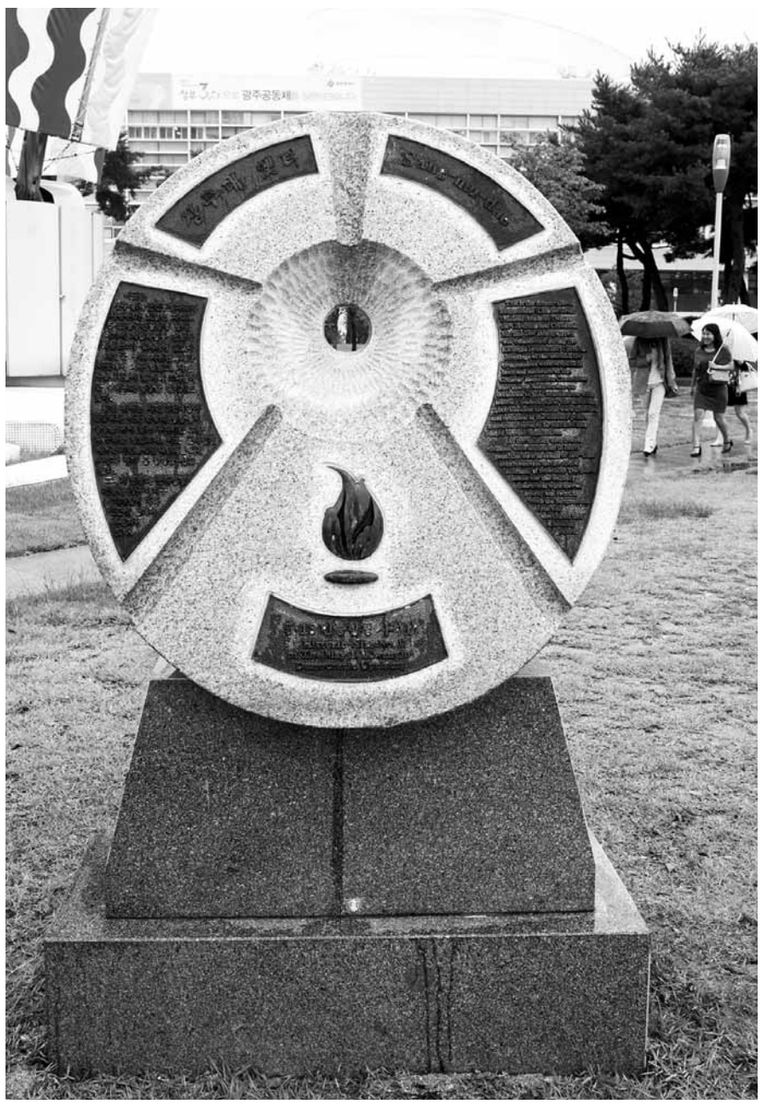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 경위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임시저장 공간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잘 살아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뒤늦게 목매 숨진 A 경위를 발견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 2명 중 한 명이었다.

유족들은 “A 경위가 재판이 시작된 뒤 너무 괴로워했고, 이와 관련해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말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진범으로 지목된 최모(32·당시 16세)씨가 사건이 발생한 2000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으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시비 끝에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건이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상무대 옛터 표지석 시청 광장 이전 상무대 옛터 사적지 표지석이 28일 광주시청 광장에 이전 설치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옛 상무대 입구에 설치돼 교통사고 초래 우려가 있던 표지석을 이날 5.18 당시 포병학교 건물 자리인 광주시청 광장으로 옮겼다. /김진수기자 jeans@

아이돌 공연 티켓 판매 속여 중·고생에 1150만원 가로채

무안경찰은 28일 중·고등학생들에게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SNS를 이용해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공연티켓을 5만~11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중·고등학생 102명으로부터 1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외국계 법인 SNS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술김에 공기총 가져왔다가…손님 신고로 무허가 들통

쌍나팔

○…술자리 다툼을 끝내고 친구에게 “사냥이나 가자”며 공기총을 가져와 보여준 50대 남성이 이 모습에 놀란 식당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무허가 총기 소지 사실이 탄로.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50)씨는 지난 27일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호적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며 친구 김모(50)씨와 다투다가 돌연 2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공기총 한 정을 가져와 협박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것.

○…방금까지 다투던 이들이 공기총까지 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손님의 신고로 정씨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김에 사냥이나 가자고 했는데 친구가 ‘네 주제에 무슨 총이 있느냐’며 믿지 않아 직접 보여준 것”이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보유한 사실이 들통.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평택 토지 전문

SAMSUNG ▶120만평 LG전자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융 2억)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정남 IC 5분 !!
평 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치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10억투자 10억 순수익
▶ 매가 10억 (평당 56만)

※ 토지 2억 ~ 30억 까지 다량 확보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저렴하게 드립니다
※ 실투자 1천 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융 2억 보3천 월 70만)

010-7384-7800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 정부합동청사 1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주차 완비 (50대)
1층 (상가) 120평
2층 ~7층 오피(연구실) 룸 56개
8층 (41평) 사무실 가능
※ 월수익 3,000만
▶ 매가 38억 (융 25억 가능)

첨단 소형 연구실(사무실) 임대

10평~12평 (총 56개)
신축건물 , 주책 400평 완비
(60대 가능)
▶ 보 500만 / 월 35만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올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융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융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융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융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융 5천)

062-527-7600

법률 경매
㈜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① 북구 용봉동 (근린시설)
토 179평, 건 155평
용봉동 신동아 아파트 인근 , 식당건물
▶ 감정가 7억4천 → 최저가 7억4천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9평
신가중 부근
룸 8개 – 월수익 250만
▶ 감정가 4억 → 최저가 2억8천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입구,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4억9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장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

010-6834-4800